



리 왕조

[t](#) [f](#) [✉ 메일](#) [🖨 프린트](#) [📍 주소복사](#) [- 글자크기 +](#)

[📖 목록보기](#)

리 왕조 (Ly Dynasty, 1010-1225)

- 리 타이 또(Ly Thai To, 太祖, 1010-1028)
- 리 타이 퉁(Ly Thai Tong, 太宗, 1028-1054)
- 리 타인 퉁(Ly Thanh Tong, 聖宗, 1054-1072)
- 리 년 퉁(Ly Nhan Tong, 仁宗, 1072-1127)
- 리 턴 퉁(Ly Than Tong, 神宗, 1128-1138)
- 리 아인 퉁(Ly Anh Tong, 英宗, 1138-1175)
- 리 까오 퉁(Ly Cao Tong, 高宗, 1176-1210)
- 리 후에 퉁(Ly Hue Tong, 惠宗, 1211-10/1224)
- 리 찌에우 호앙(Ly Chieu Hoang, 昭皇, 1225)

오랜 중국 지배기를 거치는 동안 베트남인들은 끊임없이 저항을 계속했고 10 세기에는 마침내 독립을 이루게 된다. 중국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회복기를 거친 국가는 점차 중앙집권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중앙집권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한 상황이었다. 한편으로는 치수사업을 통해 농업의 발달에 필요한 수로와 뚝을 만들기 위함이었고, 그와 동시에 추후 중국이 다시 침략할 경우 나라를 지키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군주국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시 베트남에는 여전히 봉건체제를 유지하려는 세력이 존재하였기에 불안정한 시기가 계속되었다. 1009년 리왕조(Ly Dynasty)가 건립된 후에야 비로소 군주가 안정적인 권력을 지니게 되었다.

1010년 리 공 우언 Ly Cong Uan(王名 '리타이또 Ly Thai To')이 왕위에 오르면서 수도를 오늘날 하노이 지역인 탕롱(Thang Long)으로 옮겼으며, 이 지역은 19세기초까지 베트남의 수도로 남게 된다. 리타이또는 왕위에 오른 후 모든 죄수들을 사면해주고 고문에 사용되는 도구들을 없앨 것을 명하였다. 1054년 그의 계승자 리타인동(Ly Thanh Tong)은 나라를 다이비엣(Dai Viet, 大越)이라고 불렀다.

당시 왕은 모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지니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토지가 귀족이나 고위관리들의 사유지나 봉토(封土)로 구분되어 실질적으로 왕이 다스리는 땅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다. 개인이나 마을이 소유한 토지에는 세금이 부과되었다. 토지는 다음과 같이 구분·관리되었다.

당시 왕은 모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지니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토지가 귀족이나 고위관리들의 사유지나 봉토(封土)로 구분되어 실질적으로 왕이 다스리는 땅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다. 개인이나 마을이 소유한 토지에는 세금이 부과되었다. 토지는 다음과 같이 구분·관리되었다.

- 국유지
- 왕족이나 관리의 토지(봉토)
- 마을의 공전(公田)
- 사유지

왕족이나 고위관리들에게 주어진 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었다. 먼저 자신의 토지와 토지에 속한 사람들을 함께 소유할 수 있는 토지소유권이 있는데, 여기에 속한 소작농들은 지주에게만 복종하고 국가에 대해서는 세금이나 노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 외에 상당한 토지의 소작농들은 세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동시에 국가에도 지불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토지는 중앙 군주의 직접적인 지배 하에 있었다. 예를 들어, 군대장 리 트엉 끼엣(Ly Thuong Kiet)은 4,000의 소작농 가구가 있는 영지를

다스리지만, 그와 동시에 중앙 군주에게 속한 10,000 가구를 함께 다스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영지와 사유지는 왕의 소유였다. 영주가 죽으면 그들의 자손들이 이를 이어받을 수 있지만, 왕에게 바쳐지는 경우도 있었다.

리왕조의 왕들은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레 호안(Le Hoan)이 시작한 전통에 따라 왕은 매년 초, 농업의 신을 숭배하는 의식을 펼치면서 손수 땅에 쟁기질을 하는 상징적인 행사를 거행하였다. 1038년 한 관리가 리 타이 퐁(Ly Thai Ton) 왕에게 손수 쟁기질을 함으로써 왕으로서의 위신을 떨어트리지 말라고 충고하자, 왕은 “내가 신을 위해 땅을 일구지 않는다면 어찌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버팔로를 해하거나 흠치는 자는 법에 의거하여 엄하게 다스려졌다. 또한 제방을 매우 중시 여겼는데, 고위관리들은 이를 잘 관리할 책임을 지고 있었다. 수많은 제방과 수로가 건설되었는데, 꺼싸(Co Xa) 제방(1108), 저우 나이(Dau Nai) 운하(1029), 램(Lam) 운하(1050), 라인 깡(Lanh Kinh) 운하(1089) 등이 대표적이다.

리왕조 초기부터 국가기구를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당시 국가는 24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각 지방은 왕족들에 의해 관리되었으며 중앙집권화 된 군주국은 이러한 귀족들의 도움을 받아 운영되었다. 왕자들은 각자 자신의 영지와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왕족 계층은 행정 관리직, 군대 관리직과 함께 강력한 힘을 가졌다. 이러한 고위관리들은 국가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지만, 땅을 빌려주는 대가로 받은 돈과 그들이 관리하는 행정구역내의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수익을 얻었다. 하지만 왕실이 토지대여, 수공예, 목재, 상업 등에서 얻은 세금으로 수익을 거둬들이면서, 관료들은 점차 왕실로부터 봉급을 받는 형태로 변모해 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리들은 혈통을 기반으로 한 그들의 특성을 점차 잃어가게 되었다.

승려들은 왕에게 있어서 중요한 충고를 주는 역할을 하였다. 리왕조의 창시자는 번 하인(Van Hanh)이라는 유명한 승려의 도움으로 왕위를 얻게 되었다. 비엔 통(Vien Thong) 승려도 왕위계승자로부터 매우 존경 받는 스님이었다.

리왕조는 또한 성문법을 만들었다. 1042년 리 타이 퐁(Ly Thai Tong, 이태종) 왕은 그의 고위관료들에게 ‘법과 규율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적절히 분류하여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역사서에는 이 법이 완성되어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 모두가 이를 환영했다고 기록되어있다. 위법자와 범죄자들의 사회 복귀 제도도 시행되었다. “10개의 주요 범죄”, 특히 반란죄의 경우, 가장 가혹한 처벌이 내려졌다. 국가 내에서 18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노예로 파는 것은 금지되었다. 또한 짐을 끄는 동물들을 보호하고 토지를 저당 잡는 것을 규제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해적들과 고위관료들이 심하게 착취행위를 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었다. 이러한 법률의 제정은 전왕조(Tran Dynasty)에 의해서 완성되었는데, 이러한 조항들은 반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당시, 삼각주 내에서는 대부분 비엣족(Viet)이 거주하였지만 고산지대에는 여러 소수종족이 살고 있었고, 왕실의 입장에서 이러한 소수종족들과의 관계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역사적으로 비엣족과 소수종족들간에는 통합과 적대의 관계가 공존하였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삼각주 지역과 고산지대는 함께 협력하였으며 서로를 필요로 하는 입장에 있었다. 또한 외부민족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서로의 존재가 필요하였기에, 이들은 하나의 국가가 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엣족의 봉건주의자들, 특히 왕족과 고위관리들은 소수종족을 계속해서 억압하고 약탈했으며, 그로 인해 잦은 반란과 보복이 뒤따랐다



리왕조가 세워진 11세기에는 다이비엣(Dai Viet) 국가의 북쪽과 북서쪽 경계가 아직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았으나, 중국과 접하고 있던 북쪽부터 동북쪽에 이르는 경계는 중요한 지역이었다.

당시 이 곳에는 타이족(Tay)과 농족(Nung)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당시 다이비엣 왕국에 많은 기여를 해 오던 중요한 세력이었으므로 이들을 왕국의 구성원으로 흡수할 필요가 있었다. 리(Ly) 왕은 타이족이나 농족의 귀족들과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상대 부족들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곤 했다.

중국내에서는 여전히 다이비엣을 다시 정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존재하였다. 1069년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인 위기를 벗어날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송나라의 황제는 급진 개혁가 왕 응안쩌(Wang Nganche)에게 전권을 부임하였다. 하지만 왕 응안쩌(Wang Nganche)는 자신의 개혁이 실패로 끝나자, 송나라의 위상을 되살리고 다이비엣의 부를 차지하기 위해 리왕조를 공격하였다. 하지만 1074년 중국의 남부 지역들은 군사를 정비하고 다이비엣과의 무역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

리왕조의 왕좌에 겨우 10살짜리 아이가 오르면서 왕국의 모든 권력은 리 트엉 끼엣(Ly Thuong Kiet) 장군에게 주어졌는데, 그는 송나라의 침략에 대비하여 공격적인 방어를 취했다. 1075년에는 십만 군사로 구성된 두 무리의 병력을 중국으로 투입하였는데, 한쪽은 농족(Nung)의 족장인 퉁 단(Tong Dan)의 지휘하에 상륙하였고 다른 쪽은 리 트엉 끼엣 장군의 지휘하에 해상으로 침투하였다. 리 트엉 끼엣 장군은 당시 왕 응안쩌(Wang Nganche)의 개혁정책에 대해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불만들을 시기적절하게 이용하면서 중국 남부 지역에서는 ‘해방자(liberator)’적인 존재가 되었다. 개혁가를 비난하는 현수막이 세워지는가 하면, 사람들은 리 트엉 끼엣 장군의 원하는 바가 오로지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확신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리(Ly)왕조의 군사들이 중국에 상륙하자 사람들은 열렬히 환영했고, 병력들은 남중국의 구석구석을 쉽게 점령할 수 있었다. 리 트엉 끼엣 장군은 43일간의 포위작전 후 1076년 3월 1일 양쩌우(Yung Chow) 요새를 공격하여 완전히 파괴하였고, 다른 요새들도 이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이에 대항하여 공격을 개시하기 위해서 송나라는 참파(Champa)와 크메르(Khmer) 왕국과 연맹을 맺었다. 1076년 4월 리 트엉 끼엣은 그의 목적이었던 중국의 주요 도시를 파괴하는 것에 성공한 후 그의 군사를

중국에서 해산시켰다. 1077년 송나라의 군사들은 경계를 넘어서 뉴 응웻(Nhu Nguyet) 강에서 리 장군의 군사들과 마주하게 되었다. 거친 싸움이 뒤따랐고 송나라의 군사는 강을 건너지 못하였다. 전쟁 속에서 리 트영 끼엣 장군은 자신이 쓴 시를 밤에 읊어서 그의 군사들로 하여금 강의 신이 한 말이라며 이를 믿게 하였다.

“남쪽의 산과 강을 건너, 송나라의 황제가 통치를 하고 있다.

지금 이는 천국의 책에 쓰여져 있는 말들이다.

어떻게 그 야만인들이 감히 우리의 땅을 침범하려 하는가?

그들은 반드시 질 것이다.”

그 어느 때 보다 사기가 높아진 군사들은 전염병으로 죽어가던 송나라의 군사들을 공격하였다. Ly Thuong Kiet 장군은 5개의 전방 지역들(오늘날의 까오방(Cao Bang)과 랑썬(Lang Son)을 양도할 것을 포함하는 평화 조약을 맺었고, 1077년 송나라는 이를 받아들였다. 2년 뒤, 협상을 통하여 리왕조는 영토를 양도받았다.

리 트영 끼엣 장군은 이러한 승리를 이끈 장본인이었다. 그는 뛰어난 전략가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군사들의 사기를 드높이는 법을 아는 훌륭한 정치인이었다. 이러한 중국 군사에 대한 승리로 인하여 국가권력이 안정화되었으며, 이후 쩐왕조(Tran Dynasty)는 군사력을 더욱 강화시켜 두 세기 후에 닥치는 몽골의 공격에도 대항할 수 있었다.

불교는 승려들에 의해 왕권을 얻게 된 리왕조 체제 하에서 정점에 도달하였다. 이에 대한 대가로, 승려들은 높은 특권들을 가지게 되었다. 왕들은 교리를 공부하는데 관심을 가졌고 승려들을 조언자들로 두었다. 많은 사원들이 소작농들에 의해 축조되었고, 승려들은 세금과 군사적 의무를 면제받았다. 왕들과 왕자들은 많은 사찰을 세우고, 종을 주조하는가 하면, 경전을 전파하였다. 타이 또(Thai To) 왕은 중국에서 땀탕(Tam Tang)의 글을 가져올 것을 명하는가 하면(1018), 타오 즈엉(Thao Duong)이라는 종파의 탄생을 지휘하기도 했다(1068). 이 후 여러 왕들이 불교 종파의 원로로 지냈으며 왕자들과 귀족들도 이를 따랐다. 리왕조 시대에 세워진 아름다운 사원들 가운데 일부는 현재까지도 남아있다. 예컨대 1102년 하노이에 세워진 꾸언 타인(Quan Thanh) 사원, 타이 빙(Thai Binh) 지역에 세워진 지엔 흐우(Dien Huu) 사원(1041), 바오 티엔(Bao Thien) 사원(1050), 께오(Keo) 사원 등이 있다. 이란(Y Lan) 여왕은 그녀의 경쟁자를 암살하도록 명하는 죄를 지었는데 그 후 평생 동안 100개의 사원을 지으면서 죄를 씻고자 하였다. 또한 여러 불교 종파와 학교가 만들어졌다.

자연 재해와 외세의 침략위험이 계속되는 가운데, 복잡한 관료제로 구성된 절대군주제 하에서 사람들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회적 의무, 복종, 군주에 대한 충성 그리고 계급사회에서의 무조건적인 존경을 가르칠 교리가 필요했다. 한나라 이후 중국에서는 유교를 국가의 종교로 받아들였고, 베트남 왕조 또한 이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1070년에 리 타인 퉁(Ly Thanh Tong, 이성종)은 “문묘(Temple of Literature, 반미에우 Van Mieu)”을 만들었다. 이는 공자와 그의 제자들을 위한 학교였으며 고위관료들의 아들들이 인성교육과 행정적인 업무를 배우는 곳이기도 하였다. 1075년 유교 학자들이 관리직에 나갈 수 있는 첫 시험이 치러졌고, 이 시험은 귀족집안의 자녀들만 응시할 수가 있었다. 1080년에는 기록 보관소를 관리하고 칙령을 쓰는 임무를 맡는 기관의 관리들을 뽑기 위한 시험이 있었다. 1089년 고위관료의 계급이 엄격히 조직화되었다. 유교의 등장은 두 가지 현상에 따른 것이었는데, 계급체계 생성의 필요성과 더불어 국가기관에 점차 교육받은 평민들이 증가하였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이들에게 낮은 위치만 주어졌고, 높은 자리들은 모두 귀족이나 왕족들에게만 주어졌다.

리왕조 시기에는 첫 역사학적인 작업들도 이뤄졌다. 예컨대 이 시기 지금은 비록 남아있지 않지만, 도 티엔(Do Thien)의 지휘하에 제작된 비엔 디엔 우 링(Viet Dien U Linh)과 링 남 찌 콰이(Linh Nam Chich Quai)라는 역사책이 있었다. 10세기, 처음으로 찌오(Cheo)라는 전통극 공연장도 만들어졌고, 이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아갔다. 몽골의 침략시절 잡혀온 된 리 응웬 갓(Ly Nguyen Cat)이라는 포로는 뜨엉(Tuong)이라는 전통극의 발전에 눈에 띄는 공헌을 하기도 했다.

리왕조 시기의 건축과 도예는 절정에 달했다. 불교의 전파로 많은 사원이 세워졌고, 이중 일부는 잘 보존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해 이 시기에 제작된 대부분의 예술작품들이 파괴되었으며, 지금 남아있는 작품들로부터 그 시기의 예술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리왕조의 일부 작품들은 프랑스 역사가들에 의해서 앞 선 9세기 다이 라(Dai La) 시절에 만들어진 것처럼 잘못 분류되는 경우도 있었다.

1126년 건립된 린 승(Linh Xung) 사원의 비석에는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곳은 어디든 사원이 지어져 있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이러한 사원들의 주요 특성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 주변의 나무숲, 정원, 연못이었다. 대부분은 언덕 혹은 바람이 부는 곳에 세워졌고, 고요한 아침이나 저녁의 느린 종소리는 마치 자연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어떤 사원들은 의례에 참여하기 위해 온 수 천명의 순례자들을 수용해야 했기 때문에 그 규모가 장대하였다. 지엔후우(Dien Huu) 사원은 1049년 연못 한가운데 서있는 돌 기둥 위에 세워졌으며, 그 모습이 마치 연꽃이 피어나는 모습과 같은데, 하나의 기둥으로 만들어진 우아한 구조물로 잘 알려져 있다. 연꽃 모티프는 많은 기념비에서 나타난다. 연꽃은 ‘진흙탕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의 악취로부터 자유롭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아름다움과 순수함을 상징한다. 엄청난 크기의 돌기둥들은 주로 연꽃 모양의 기반 위에 놓여있는데, 1086년에 세워진 장(Giam) 사원의 돌기둥은 지름이 4.5m, 둘레가 3.5m에 달한다. 이러한 돌기둥들의 아랫부분에는 물결을 묘사한 바위가 있으며, 측면은 출렁이는 바다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모습을 띤다. 용들이 소용돌이를 이루면서 우아한 자태로 돌기둥을 타고 오르는 모습을 하고 있다.

사원의 지붕은 곡선형이며, 탑의 높이가 12층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원들은 그 건축미와 조각상들로 유명하다. 팟딕(Phat Tich) 사원의 탑 하단에는 붓다의 깨달음을 상징하는 보리수 나무가 조각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두 승배자들이 봉헌을 드리고, 그 배경으로는 네 사람이 춤추며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장면이 새겨져 있다. 땅은 꽃으로 가득하다. 이 조각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밝으며 몸짓은 매우 우아한데, 이러한 장면은 내세를 기원하는 불교의 명상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으로 여겨진다.

리왕조의 궁전이 있던 하노이의 북서 지방에서는 많은 종류의 조각상, 조각품 그리고 다양한 주제를 표현한 도자기 등의 유물이 발견된다. 이러한 유물들이 표현하고 있는 가장 흔한 주제로 악어가 등장하는데, 악어는 머리를 치켜세운 채 돌출된 눈으로 이쪽 저쪽을 바라보며 콧구멍을 벌름거리고 있는 모습이다. 유연한 몸으로 뒷다리에 힘을 주고 서있는 악어는 당장이라도 튀어나갈 것 같은 모습이다. 사자의 모습이 새겨진 도자기가 발굴되기도 한다.

1965년 찡응썸(Chuong Son) 사원(1105)에서 발굴된 유물에는 사람의 몸을 가진 새의 이미지와 불사조, 용 등의 이미지가 남아 있었는데, 이는 그 시기에 흔히 다뤄지던 형태였다. 또한 생활용품이나 장식 용도의 다양한 유물들, 도자기, 에나멜로 장식된 자기 등의 유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에나멜 자기 중에는 푸른 오팔빛과 회갈색의 은은한 광택과 다양한 명암이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유물로 손꼽힌다. 장식은 꽃, 용, 연꽃, 새 등으로 다양하고, 표면은 사람 형상의 프레스코나 그림으로 채웠다. 그림이나 양각의 장식은 우아한 선과 활기찬 분위기로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새, 코끼리, 춤추는 사람들의 움직임은 만개한 꽃과 조화를 이루었고, 익살스러운 병사의 모습과는 대조를 이루었다. 특히 풍부한 장식을 선보이는 자기들이

아름답다. 도자기는 멀리 중국에까지 판매되기도 하였고 궁정에 상납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리왕조 시대는 예술이 절정에 달한 시기였다.

최근 업데이트 : 2014-12-04